

기획

# 상처를 사랑으로 품어준 보금자리

## 유기견 보호소 ‘공공이네’ 이야기

안선형 기자 37ahd@khu.ac.kr  
양윤혁 기자 yangyun0820@khu.ac.kr

# 내 지금 이름은 ‘까미’다. 원래 이름은 ‘초코’였지만 그렇게 불러주는 사람은 이제 없고 아저씨는 나를 ‘까미’라고 부른다. 내가 살던 집은 아주 예전에 없어져버렸다. 그렇게 주인님도 함께 사라져버리고, 내 옆엔 흙바닥과 쌀쌀한 바람과 나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남았다. 무척 힘들었지만 지금은 탁 아저씨 네에서 지내고 있다. 지금은 나 같은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그 추웠던 때에 비해서 좋지만, 요새 아저씨 표정이 이상하다... 예전 주인님이 떠나시기 전과 비슷하다고 할까. 이렇게 아저씨와도 떨어지게 되는 것은 아닐지 요새 걱정이다.



탁남일 씨는 1998년 지인으로부터 유기견 한 마리를 부탁받아 기르게 됐다. 그 강아지의 이름은 ‘꽂이’였다. 안타까운 마음에 유기견들을 한두 마리씩 거두다보니 탁 씨는 ‘공공이네’의 소장이 됐다. 그리고 2011년 11월, 영통에선 한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다.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20층 말끔한 아파트가 새로 올라가는 과정은 공공이네도 피해가지 못했다. 강제 이주 명령이 떨어지고, 수원시에서 이사비용으로 건넌 640만원과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공공이네’는 처인구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탁 소장이 강아지들과 함께 지낸지는 어느새 20년이 돼 간다. 소장님 올해 연세는 66세. 일거리는 점점 줄고, 신용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있지만, ‘공공이네’의 월세는 이미 10개월이 밀렸고 계약도 만료돼 오는 10월이면 또 다시 자리를 옮겨야 할 처지다.



### 악화되는 자금문제... 위기의 공공이네 자원봉사 도움있지만 여전히 어려워

지난 4월 6일 페이스북에는 사실 유기견 보호소 ‘공공이네’에 관한 글이 게시돼 화제가 됐다. 한 용인대 학생이 올린 글은 ‘공공이네’가 자금문제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 자원봉사와 후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그중에는 우리학교 유기견 보호 소모임 ‘보금자리’(국제·서울캠퍼스 통합)도 작은 손을 보태고 있다.



처인구 운학동에 위치한 ‘공공이네’와 탁 소장님의 모습. 각각의 개들은 발견된 위치와 관련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이들은 오는 10월까지 새 거처를 구해야 할 처지다. (사진=안선형 기자)

‘보금자리’ 유채원(프랑스어학 2017) 회장은 “동물도 인간과 다름없이 존중받아야 할 생명체다”고 말한다. 평소 동물보호에 관심이 많았다는 유 회장은 봉사활동을 다녀온 후 동물 보호 동아리를 만들 결심을 했다. 아직 공식 동아리는 아니지만 벌써 서울캠퍼스 15명, 국제캠퍼스 35명의 회원이 모였다. “인간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는 것은 동물이다”며 유 회장은 “보호소에 있는 유기동물들 또한 누군가의 사랑을 받던 애완동물이었다. 지저분하고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는 것 대신 사랑과 관심으로 다가가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보금자리’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보호소 방문 봉사활동과 더불어 앞으로 입양 활동, 유기동물 인식 개선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에 처해진다. 사실 보호소에선 안락사를 진행하지는 않지만 절대적으로 수가 적고 그나마도 자금 부족으로 운영은 어려운 실정이다. 탁 소장은 “처음엔 영통동에서 가여운 마음에 버려진 개들을 한두 마리 받아주다 보니 어느새 70마리나 모였어요. 그런데 영통구청에 몇 번의 경고를 받아 처인구로 시설 보호소를 작게 운영하게 됐어요”라며 유기견 문제가 남 일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

비교해보면 현실은 더 비참해진다. 이런 현실에 대해 탁 소장은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어 이렇게 버려진 동물들이 “보호소로 보내진 대부분의 동물이 안락사를 당한다는 걸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안타까워했다.

버려진 애완동물은 한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음에 대한 슬픔과 배고픔 등 복합적인 감정이 서린 그들의 눈빛을 보는 것은 언제나 힘든 일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등록기준(동물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동물은 2015년 97만 9천 마리라. 그중 유기동물은 8만 2천 마리라. 버려진 동물은 시에서 관리하는 보호소 또는 사설 보호소로 간다. 시에서 운영하는 보호소에선 7일 간의 공고기간을 갖고, 그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동물은 분양되거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결국 안락사

주인의 품으로... 14.6%  
안락사로 죽음... 20%

그렇다면 버려진 동물은 왜 이렇게도 많은 것일까? 우선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견의 소유자가 동물병원에 동물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지역 부서에서 ‘동물 등록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소유자를 찾아 유기견의 숫자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높다. 점차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주인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유기동물이 14.6% 뿐이라는 점이 슬픈 실상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안락사에 처해지는 경우가 약 20%인 것과

이렇게 시작된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등록된 동물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 주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처벌도 어렵다. 그렇다고 주인을 찾아 처벌이 이뤄지더라도, 현재 그 수위는 100만원의 벌금 수준이다. 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기간이 짧은 것 역시 문제의 원인으로 제시되곤 하지만, 보호소 입장에서 계속해서 유입되는 동물을 두고 찾아가지 않는 동물을 무한정 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동물들은 유기로 인해 거리를 떠돌거나, 안락사 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물들이 받게 되는 셈이다. 탁 소장은 “쉽게 사니깐 쉽게 버리게 된다”며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취를 하다보면 호기심 또는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충동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기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책임지는 것에 따르는 막중한 의무에 대해선 무지하다는 것을 차가운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



대학주보가 세월호를  
함께 기억하겠습니다